마음의 연꽃 피면 그것이 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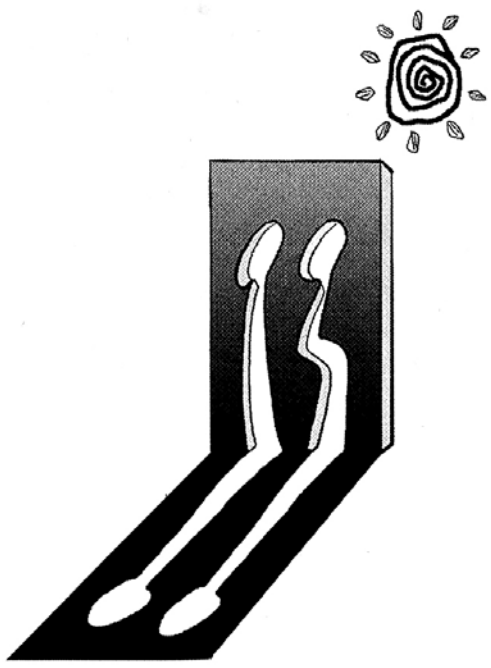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이 없으면서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건 에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면, 자동적이고도 활용적이고 영구적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데…

문 저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감정만 좀 가라앉을 뿐 증상이 그대로 있어서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맘속을 다 아는 것 같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성적인 것도 있고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것, 그냥 혼자만 알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아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스님, 어려운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도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안절부절해서 그것마저도 잘 안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신분열증은 잘 낫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무리 밉고 싫다고 해도
> 내 아픔 · 내 괴로움 · 내 몸같이
>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 마음 · 행동 부드러워져…

답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 분열이라는 것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되거든요? 인연이 돼서 몸 속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익하게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전자에 인과가 있어서 배신을 당하고 그랬던 인연은 나쁘게 몸을 망가뜨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신 분열증이라 하더라도 타의에서 귀신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의에서 일어난 건데, 자의에서 일어난 거는 다스리는 자가 자기의 주인공밖에는 없어요. 자기의 불성 주인공만이 그 의식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다 밀어 던져서 일임하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믿고 맡겨 놓으면 그대로 낫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귀신이 나한테 들렀다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유전이 됩니다.

본래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 무슨 유전성으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원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 걱정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암으로 죽었으면 자기도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패기가 없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하니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하게 생각을 하면 속의 의식들이 다 약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따라요.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그대로 속의 의식들이 따라가는 거죠. 오늘은 좋은 일 하러 간다 그러면 또 좋은 일하는 대로 따라주고요. 그냥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약하게도 되는 수가 있고, 과거의 업보와 팔자운명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영계성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내 몸 속계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좋게 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대로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한 겁니다. 속지 마라,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을 다 잠 재워라, 모든 것은 한마음 속에서 나으니, 의식 속에서 나오니 한마음으로써 대치를 해라 이 겁니다. 모든 거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라하고, 속지말고 잘 다스리며 나가라 이거죠.

동짓날 수좌들이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가마솥에서 팥죽 방울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니까 방울이 올라오는 거를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아! 이러고 주걱으로 쳤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알고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죠. 네 몸 속이 즉 팥죽이다, 네 몸뚱이는 팥죽솥이다. 그런데 네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끓어서 나오는 것을, 한 군데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각각인 줄 알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곧이 듣고 말리니까 요것도 고놈, 요것도 고놈, 문수란 놈! 하고 쳤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한 몸 속에서 나오는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까. 모두 한 속에서 나오는 것을요. 그러니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어!' 하고 거기다 되 맡겨 놓으면, 되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데에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놓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는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단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대로 바닷물이지, 그게 이 물 저 물 섞여서 딴 물이라고 이름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고 하면 말입니다. 생활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 따로 없고 다만 옮겨갈 뿐
좋고 나쁜 묘지 끄달리지 마세요

그러니 따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로 행동이 나오는 것, 말이 나오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내 몸 속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어!' 하고 다시 돌려놓고, 마음을 돌려서 나오는 대로 다스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유자재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길 겁니다.

나 · 주인공이 나눠진 이유

문 저는 한마음 법을 알게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실상 공부를 게을리 해오다 앞으로라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마음먹고 글을 올립니다. 제 안에 주인공 불성이 있고 그 주인공을 깨치는 공부가 이 공부라 하지만 어째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주인공의 존재가 나뉘어졌을까요. 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지요.

답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육신은 송장이 되니 무효란 말입니다. 정신과 자기 마음이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 놓고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폭이 되는 거죠.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따로 있는 줄 안다고요. 영화배우들이 배역을 맡아 가지고 감독에 의해서 영화 배우로서 역을 하는데, 감독은 쑥 빼 버리고 연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감독이라는 참자기가 있고, 지금 현재 물질 세계에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운용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납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합니다. 정신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 점점 살기가 급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 의지해서 살다가 자식이 자라면 부모는 껍데기가 되고 그 자식은 오히려 알맹이가 돼서 사회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알지 못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버지를 붙잡아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키울 수 있고 모든 걸 다 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근심을 하고 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 자라지도 않은 자식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네 아버지가 너한테 있는데 왜 너의 아버지를 잡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왜 고아로 사느냐? 네 아버지를 네 집에다 두고도 왜 고아로 사느냐, 이 소립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놔두고도 고아로 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子)가 진실로 믿어야 할 자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바로 불성이고 주인공이죠. 우주 전체를, 삼라대천세계를 끼고 있는 그 자체죠. 그런데 자기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나인 줄만 알기 때문에 참 딱해서, 부처님은 딱해서 중생들을 보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대성인들도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모른다면 우주의 섭류를 모르느니라, 네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으로 용도에 따라 다 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겠죠?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실천의 행을 해봐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성모암 능제 연꽃축제 및 수륙방생 천도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조선 명종때 불거촌에서 탄생하신 진묵대사님은 동양의 소 석가라하여 진나라 능인적묵(能印寂默)의 자리에 오르사 진묵이라 청송하여 후대에 업적이 길이남아 우러러 전한다 그중 만경의 능제에 남기신 행적은 하도 기이하여 구전됨에 후학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행중에 밝은 혜안으로 보니 지금의 능제 저수지에 고기잡이하는 처사님과 아이들을보고 황급히 달려가 야단을 치니 처사님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되려 매운탕을 권하며 대사를 농하여 이에 대사는 받아먹고 용변으로 죽은 물고기를 살아숨쉬는 고기로 다시 방생하는 기이한 행적을 보이사 모두 놀라 엎드려 절하며 참회 하였다 전합니다.
바로 그곳 능제 저수지에 지금은 연꽃이 만발함에 축제를 열고 수륙 천도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길 모든 대중에게 아룁니다.

성모암 대중일동

■ 일시 :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능제 연꽃축제 대행사장

※ 모든 방생물은 주최인 성모암에서 준비하며 자라, 청거북, 가물치, 등은 방생금지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성모암 종무소
Tel. 063)544-0416 Fax. 063)542-6991

"코골이, 당뇨, 암, 특효"



달마사 백련스님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무 료 침 술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